<기자수첩>

“MTBE 결렬, 현대-삼성 파워게임의 부산물인가"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MTBE 합작건이 결국 현대석유화학의 독자진출로 일단락됐다.
백지화에 이어 합작생산에 기초한 잠정합의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세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삼성-현대의 한집차리기」는 주변의 기대를 무색케하며 싱겁게 마무리됐다.
지난 7월초 현대석유화학이 충남대산공장내에 총 300여억원을 투입, 10만톤규모의 공장건설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최종안을 도출해낸 이번 합작진출건은 신규진출이라는 형식외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합작의 내면기대를 일순간 무너뜨리는, 다소 아쉬운면을 연출했다.
물론, 수익성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내부검토가 진행된 후 결정된 사안으로 내적고심의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양 기업은 실제 부지 및 기술개발을 통한 선점위치에다 정유사라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세, 기존의 유공과 대림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잠정합의에 임했던 것만 보더라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합작진출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상당부분의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양기업이 결별을 선언하게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수면위로 떠오른 이유 가운데 주된 것은 호남정유를 비롯, 대부분의 정유사가 93년과 94년 잇따라 자체수요 확보를 이유로 신·증설계획을 발표, 이를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경쟁사의 신·증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자칫 주춤거리다가는 적절한 진출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7월현재 국제가가 연초의 톤당 220달러를 크게 웃도는 30 0달러로 80달러이상 오르는 가격폭등 현상이 계속되자 원료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인 현대가 더이상 계획을 늦출 수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독자진출을 모색하면서 상황을 정리해 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요인외에 그룹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수면밑 또다른 마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삼성의 승용차진출 계획과 현대의 제철소 건립계획이 양기업간 견제용으로 여론화되면서 비화되기 시작한 파워게임이 삼성의 한국비료인수를 계기로 더욱 표면화됐다.
따라서 이같은 시점에서 현대석유화학의 MTBE 독자진출이 터져 나왔다는 점은 그 과정이야 어찌됐든 시기면에서 양대기업의 갈등이 깊게 작용했음을 시사해 주는 충분한 이유로 받아들여진다.
무한경쟁의 도마위에 오른 국내석유화학산업의 획기적인 자구책으로 기대와 관심을 증폭시켜왔던 「MTBE 현대-삼성합작진출」은 이로써 일파만파로 숱한 염문(?)만 뿌린채 싱거운 결과를 남겼다.
일정 예견되긴 했지만 석유화학산업의 한획을 긋는 찰나에 어긋나버린 아쉬움을 지을 수 없다.
이번 결렬이 기업간 파워게임에 수반된 감정대립의 부산물이 아니길 기원한다

<화학저널 1994/8/29>